

# 여수산단 기업·단체 '연합봉사' 활발

## 집수리·연탄 배달·미용 서비스 등 연말맞아 소외계층에 온정의 손길

여수 국가산업단지 석유화학 업체들의 온정의 손길이 연말을 맞아 지역 사회 소외계층에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역 사회 기관·단체들이 봉사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수가 늘어나면서 '연합봉사'가 지역 사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

여수산단 호남석유화학 '더불어 봉사단', LGMM '겨자씨봉사단', 한화 케미칼 '연합봉사단', 삼남석유화학 여수공장 '한사랑 봉사단' 등은 이날 들어 지역단체와 연계한 맞춤형 봉사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호남석유화학 여수공장 '더불어 봉사단'은 지난 17일 주거환경이 열악한 둔덕동 문치마을 주민들을 위해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LGMM 여수공장 '겨자씨봉사단'은 소라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180여명 노인들의 따뜻한 연말을 위해 온정나누기 행사를 마련했다.

또 '겨자씨 봉사단'은 직접 접근 김장김치와 쌀을 독거노인 40명에게 전달하고, 경로식당에서는 돼지고기수육과 막걸리 등 음식을 준비해 식사

를 제공했다.

이에 앞서 삼남석유화학 '한사랑 봉사단'은 지난 16일 여수 문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천받은 독거노인 10여 세대에 연탄 4000장과 난방용 연료와 생필품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는 특히 고지대 독거노인 세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봉사단장이 이수현 공장장을 비롯해 봉사대원 20여명이 손수 만든 지게를 지고 연탄과 생필품을 배달해 감동을 더했다.

이 밖에도 한화케미칼 여수공장을 비롯해 대한생명, 한화호텔&리조트, 한화손해보험, 한화증권, 여수열병합발전 등으로 꾸러진 '한화가족 연합봉사단'은 여수지역 주변 우수마을인 화양면 오천마을을 찾아 지난 17일

봉사활동을 펼쳤다.

연합봉사단은 오전마을 80여 세대 주민의 집을 방문해 낡은 전기설비 및 고장난 가전제품 수리, 도배, 장판 교체, 보일러수리와 미용 서비스 등을 실시했다.

한화 호남지역 연합봉사단은 지난 2002년 출범, 농·어촌과 낙도를 찾아가 지역단체와 연계한 '맞춤형 봉사활동'을 펼쳐와 여수산단 사회봉사활동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오철근 한화 호남지역 봉사단장은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연합봉사가 이제 자리를 잡아가면서 참여 기관 단체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함께하는 봉사는 단순한 봉사에 그치지 않고 건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故 한창기 선생 '뿌리깊은 나무박물관' 개관** 한국 잡지사에 큰 획을 그은 '뿌리깊은나무' 발행인 고 한창기(1936~1997)선생의 소장 문화재 6500여점을 상시 관람할수 있는 '뿌리깊은 나무박물관'이 21일 순천시 낙안면에 문을 열었다. 박물관은 전체면적 1736㎡에 박물관 1동과 한국의 전통 한옥 모습을 관람할수 있는 한옥 8채로 구성됐다. <순천시 제공>

## 순천영상미디어센터 개관 스튜디오·편집실 등 갖춰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두드림' 최근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영상미디어센터 '두드림'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난 2008년 '지역 영상미디어센터 설립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0억원을 포함 2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문화의 거리에 신축됐다.

미디어센터는 영상 편집실과 촬영·편집 교육이 가능한 스튜디오, 디지털 편집실을 갖췄으며 디지털 캠코더 등 최신 미디어 장비를 구축했다.

/동부취재본부=예정열기자 jyj@

# 여수시민단체 "문화원장 퇴진하라"

## 표준정관 무시·무자격자 이사 선임 등 불·탈법 의혹

여수지역 시민단체가 문화원의 탈법적 운영을 이유로 조재인 현 여수시 문화원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여수문화원 개혁촉구 범시민대책위와 여수사랑 시민행동100인 선언위 등 2개 단체는 21일 여수시청 브리핑 룸에서 회견을 하고 "탈법, 비민주적으로 문화원을 운영하고 있는 조 원장은 즉각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여수시 문화원은 공익법인임에도 조 원장이 사조직 화하고 탈법 운영되고 있다"며 "지방 문화원 설립 등 인·허가와 승인권을 갖고 있는 전남도는 감사에 나서 탈법, 부당행위를 밝혀내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표준정관 무시, 무자격자 이사 선임, 회원 자격 임의 제한 등 불·탈법 사례들을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또 "여수시도 문화원의 탈법적인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당장 보조금이나 각종 사업비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규탄대회, 서명운동 등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 원장은 "불·탈법적으로 문화원을 운영한 적이 결코 없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 여수시 전국 최우수 자원봉사센터 영예

## 자원봉사 인프라구축·프로그램 등 높은 평가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자원봉사자 교육이 한창인 여수시(광주일보 11월 11일 2면)가 전국 최우수 자원봉사센터로 선정됐다.

21일 여수시에 따르면 전국 230개 자원봉사 센터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11년 자원봉사센터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자원봉사센터로 선정됐다. 또 전국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경연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누렸다.

시는 ▲지역 자원봉사 활성화 위한 인프라구축 ▲운영관리 ▲우수프로그램 ▲자원봉사 네트워크 등 4개 분야 13개 항목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지난해에도 우수 자원봉사센터로 선정됐으며, 전남도 자원봉사자 우수체협사례 공모에서는 8명의 수상자 중 5명이 우수상을 휩쓸었다.

시는 자원봉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전국 최초로 '봉사단 체별 책임제'를 도입·운영해 왔다.

박점숙 여수시 자원봉사과장은 "자원봉사자의 활약 여부에 따라 박람회 성과가 결정되는 만큼 남은기간 더욱 철저히 준비해 성공박람회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박람회 준비를 위해 지난 6월 자원봉사자 모집을 시작으로 내년 3월 5500명(예비인력 1500명포함)을 최종선발한다. 현재 6223명의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우수인력육성을 위한 기본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 전 북

# 전북 농업·농촌 붕괴 우려

## 5년간 농가인구 13% 감소... 고령화 심각 권익현 도의원 "도, FTA대책 다시 세워야"

전북지역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심화로 농업·농촌의 붕괴가 우려된다.

전북도의회 권익현 의원은 최근 전북도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5년간 전북도의 농가인구 감소율은 전남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은 것은 전북도의 농정당국의 안일한 대처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이 통계청 발표를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도내 농가인구는 27만8000명으로 5년 전(31만9000명)보다 4만1000명이 줄어 농가인구

감소율이 13%에 달했다.

또 권의원은 도내 농가인구중 60세 이상이 77%를 차지하는 등 심화하는 농촌고령화 현상을 지적하며 농가인구 감소는 전북 농업 생산력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 의원은 "이 같은 농촌의 현상과 FTA의 체결 등으로 농정당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도 전북도의 FTA 특별대책은 특별할 게 하나도 없다"고 성토했다.

권의원은 "전북도가 FTA에 대응

하기 위해 2012~2020년 4조3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연간 475억 원가량에 불과하고 이 중에서 도비는 5000억 원도 안된다"며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인 FTA 대책을 다시 세우라"고 질타했다.

한편 전북지역의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 감소했다.

전북도는 올해 쌀 생산량이 총 68만4219t으로 지난해 69만1057t보다 6838t(1%) 줄었으나 10a당 수량은 524kg으로 전년보다 10kg가량 늘었다고 21일 밝혔다.

쌀 생산량의 감소는 재배면적이 2.7% 줄었고, 낱알 형성시기에 강우량 증가·일조시간 부족 등으로 포기당 유효 이삭 수가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서해안 고속도로 IC~고창읍 도로 개통

서해안고속도로 IC에서 고창읍으로 진입할 수 있는 연결도로가 최근 개통됐다.

고창군이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으로 추진한 서해안 고속도로 IC~고창읍간 도로는 사업비 171억원을 들여 총연장 1.54km·폭 25m(4차선) 규모이다. 주요시설은 교량 2개소, 자전거도로 3.1km, 가로수로 소나무 400여주를 식재해 친환경 명품 가로수 길을 조성했다.

이번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지난 2000년부터 국비 570억원을 투자해

시행한 구시포~두어리간, 삼암~후포간, 장호~해리간, 자룡~목동간, 해리 우회도로와 함께 고창군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이 모두 완료됐다.

또한 공설운동장~석정온천간 도로가 연말에, 고창터미널~고창중화교간 도로가 내년 상반기에 준공되면 석정 웰파크 시티, 월곡 꿈에그린 뉴타운, 고수 산업단지 등 고창읍을 동서남북으로 연결하는 도시 가로망이 구축돼 각 사업별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취재본부=윤창영기자 young@

# 나라 위해 일하며 나눔 실천까지

## 정읍경찰서 입암파출소 선형미담에 훈훈

정읍경찰서 입암파출소가 관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소년을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입암파출소 최영수 소장(사진)과 직원들은 관내에서 거주하는 이모(16)군이 마을 빈집이나 저수지 등지에서 바깥 잠을 자는 것을 수차례 목격했다.

직원들은 이군을 귀가시키는 과정에서 정신 지체장애인 어머니 등 9명의 대가족이 2명 남짓한 방 2개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따라 입암파출소 직원들은 입암면 부녀회와 입암면사무소 직원들과 함께 이군 집 대청소에 나섰다.

이후 최 소장은 지난 9월말 열린 기관단체장 회의에서 이군의 사정을 알리고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기관단체장들은 이군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정읍시청으로부터 주거계량 사업비 728만원을 지원받았고, 유대식·안정도씨 등 독지가들의 성금이 답지했다. 특히 건축업을 하는 김희성(전 농민회장)은 입금을 받지 않고 기술로 봉사했고, 박기용 이장은 입암 1마리를 기증하기도 했다.

최영수 입암파출소장은 "이군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며 기존 방 2개를 보수하고 방 2개·가실 1개를 증축, 리모델링을 마쳤다"며 "불우한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해 사회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성기자 parkks@



**늦가을 청정 미나리 수확 한창** 늦가을 추위가 절정에 이른 21일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들녘에서 농부들이 미나리를 수확하고 있다. 미나리는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 함유율이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으로 해독과 혈액정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연합뉴스

# 단 신

## 전북 어린이·노인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

올해 전북지역의 어린이·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전북 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도내 어린이(13세 미만) 교통사고 사망자는 4명으로 지난해 대비 50% 감소했다.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도 622건으로 지난해보다 17건 감소했고,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망사고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대비 15.7% 감소한 102명을 기록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군산해경, 표류 선박 위치 시스템 도입

군산 해양경찰서는 조류의 방향과 유속을 근거로 표류 선박의 위치를 찾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군산해경은 해양사고 발생으로 표류하는 선박과 실종자의 수색을 위해 국립 해양조사원에서 운용중인 '수치 조류도'를 활용한 표류 예측시스템을 조만간 가동

할 계획이다.

이번에 해경이 도입할 시스템은 바다 위치에 따라 조류의 방향과 유속을 근거로 표류 선박과 실종자의 위치를 예측할 수 있어 좀 더 신속한 구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 김제시, 모악산 자락에 자연휴양림

김제시는 모악산 자락인 금구면 선암리 일대에 자연휴양림을 만들 계획이다.

휴양림은 53억원이 투입돼 32ha 부지에 만들어지며 문화관, 산막, 모험 체험장, 관찰로 등을 갖춘 예정이다.

김제시는 지구지정 등의 행정

절차를 내내까지 마무리짓고 오는 2013년에 공사를 시작해 2017년 완공할 방침이다.

한편 김제시는 22일 시민문화체육공원에서 관련 기관단체와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숲 가꾸기 행사를 갖는다.

/전북취재본부=홍운성기자 hnews@

## 순창군 신성장동력 11개 분야 선정

순창군이 향후 역점적으로 추진할 신성장동력 11개 분야를 선정했다.

이번 선정된 역점추진 분야는 ▲건강·장수관련 기업유치 ▲일본원전 사고지역 기포망·원장공장 유치 ▲장류 엑스포(Expo) 추

진 ▲장류 저역화 연구 및 실용화 추진 ▲장류 전용 옹기 가마터 유치·개발 ▲말산업 육성 ▲순창 명품한우 육성 ▲친환경 생산물 생산단지 확대조성 ▲산지개발 및 산지 이용 소득증대 방안 등이다.

/전북취재본부=이희희기자 dhlee@